

제주 삼나무숲길, 도로 확장으로 '위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삼나무숲길이 도로확장 공사로 훼손되면서 환경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9일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주변 삼나무숲 군락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최종적인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그러나 도로 확장·포장 사업이 구좌·성산읍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토지 보상이 75%가량 진행된 만큼 사업 백지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2년까지 이곳 3km구간을 현행 2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를 넓혀 교통 혼잡을 해소해나가겠다는 계획으로 베어내는 2,100여 그루의 삼나무는 인공으로 조성된 숲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로 아름답기로 소문난 삼나무숲 가로수길이 무차별 훼손되고 있다. 또 공사구간과 맞닿아 있는 도로가 2차로로 남아 있어 도로를 확장해도 병목현상은 그대로 남게 되며 되레 오름 파괴 등 주변 환경과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순흠 제주도 도시건설과 도로계획 담당은 "삼나무 훼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군락지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10년간 이어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의 진행과 최선의 대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삼나무숲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군락지 '비자림' 옆을 지나서 비자림로로 이름 붙여졌다. 가을 역사 명소로 인기가 많은 산굼부리와 구좌읍 중산간 일대 오름 등도 지난다. 도로 양옆으로 뺨뺨하고 울창하게 자라 병풍처럼 늘어진 삼나무숲 경관이 아름다워 드라이브 코스로 사랑 받는다.

지방 대도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심각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6대 광역시 가운데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 들었다.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는 데다, 2013~2016년 일시 중단됐던 수도권 집중이 재개됐고, 지방 대도시들의 산업·주거 기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이어 지방 대도시의 인구까지 줄어 든다면 지방 소멸의 파국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한겨레'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전년보다 줄었다. 인구 감소 규모는 부산 2만7,876명, 대구 9,326명, 광주 5,444명, 대전 1만2,143명, 울산 7,172명 등이었다. 오직 인천만 5,473명이 늘어났다.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다.

지방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2013~2016년에도 계속됐다. 이 4년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순이동한 시기였다. 그 전 60년 동안 한국의 인구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만 이동했다. 이 시

기에 2013년 4,384명, 2014년 2만1,111명, 2015년 3만2,364명, 2016년 863명 등 모두 5만7,722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이동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대구 2만3,208명, 부산 2만1,323명, 광주 1만3,582명, 울산 3,774명, 대전 2,767명 등 모두 6만4,654명이 이들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2017년엔 다시 지방 전체에서 수도권으로 1만6,006명의 인구가 유출됐고, 지방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 규모도 더 커졌다.

지방 대도시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의 군(농산어촌)과 기초시(중소도시)의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하다. 한국에는 지방 77곳, 수도권 5곳 등 82곳의 군이 있다. 그런데 지방의 77개 군 가운데 2017년 56곳에서 인구가 줄었고, 인구가 늘어난 곳은 21곳뿐이었다. 반면 수도권의 군 5곳 가운데는 4곳의 인구가 늘었고, 1곳만 줄었다. 이런 흐름은 중소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젊은층이라는 점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방 인구의 수도권 이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 도시는 지방을 살릴 마지막 보루다. 지방 대도시에서 인구를 유지해 주변 지역으로 파급시켜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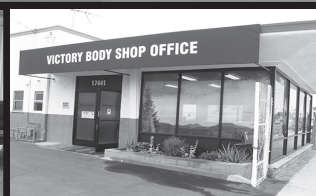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